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사도의 문안

(에베소서 1:1-2)

The Apostle's greetings

(Ephesians 1:1-2)

에베소서는 '서신 중의 여왕',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깊이 있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27번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 창조, 천사, 악령, 교회, 성도의 교통, 심지어는 성례전, 목회에 대한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독교의 교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신앙과 생활을 총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의 행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e book of Ephesians, otherwise known as the "Queen of the Epistles" and the "Grand Canyon of the Bible," has some very profound and beautiful words in it.

In Ephesians, the doctrine of the Father, the Son, and Holy Spirit, appears 27 times. It also contains teaching on such various subjects as God, creation, angels, evil spirits, churches, the communication of saints, and even the content of sacred worship and the pastorate.

Ephesians explains who we are, for whom we work, and what we have to do. On the whole, it explains the Christian's duty in faith and life as well as Christian doctrine. Moreover, it explains what Christ has done, and what his work has resulted in.

1. 수신자

1. Recipients

(1) 성도들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1) The saints

The recipients of Paul's letter were the "saints" in Ephesus. These were saints who had been called by God to be separated from the world and belong to Christ.

(2) 신실한 자들

바울의 문안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는 지적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실'이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The faithful

The recipients of Paul's letter were not only saints but also "the faithful." 'Faithfulness' refers to belief that is applied to life. There must be intellectual, sensitive, and reliable elements in our belief. Namely, 'faithfulness' signifies that we must bear our belief to the very end, waiting it out, and keeping our faith.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in Christ)'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3) Those who are in Christ

The phrase, 'in Christ,' appears innumerable times through the letters of Paul. This phrase tells us that we are united with Christ in the spiritual body.

2. 문안의 내용

2. The content of the greeting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문안한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복음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평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는지는 가르쳐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입니다. 구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봉사의 직임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The content of Paul's greeting to the people of Ephesus was 'grace and peace'. We must remain in the gospel and in Jesus Christ if we want to receive true peace. Without Jesus Christ, there is no peace; with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re can be no peace. This peace was achieve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Grace' teaches us why and how we were reconciled through Jesus Christ. Such grace is too merciful for us. The fact that we didn't deserved to be saved but God saved us anyway is due to His unlimited mercy. And the fact that God bestowed mercy on us compels us to serve others. Just as God purposed to call the Israelites in order to make them a light to the Gentiles, so also God has called us as Christians to fulfill our own duty of servi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봉사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Since God has called us to faithfully fulfill His duty of service,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receive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

- 중등부 : 7/26(월) ~ 7/28(수) / 아가페타운
- 에바다부 : 7/29(목) ~ 7/31(토) / 아가페타운
- 영어예배부 : 7/30(금) ~ 7/31(토) / 아가페타운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금주에는 중등부 수련회가 7월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비전'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주제로 에바다부 수련회가 있고,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는 영어예배부 수련회가 '하나님께

영광 -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주제로 아가페 타운에서 수련회 일정을 시작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쉼을 얻는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 제	강 사
시랑부	7.24(토)~25(주)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문정훈 목사
청년1부	8.12(목)~8.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 그 거룩한 갈망!	이종운 목사, 장석남 목사, 구희숙 목사
청년2부	8.12(목)~8.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 하나님의 말씀	이종운 목사, 정수길 목사, 유문건 목사, 문정훈 목사
디아스포라	8.6(금)~8.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 예배의 기쁨	이종운 목사, 박광일 목사
에바다	7.29(목)~7.31(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종운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3(금)~8.14(토)	아가페타운	결혼, 가정 그리고 기쁨	이종운 목사,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7.30(금)~7.31(토)	아가페타운	하나님께 영광 - 하나님을 즐거워함	조슈아 조 목사
장년부	10.2(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년부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장로수련회	8.16(월)~18(수)	백령도	하나님을 기쁘게	이종운 목사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우리교회 지하3층에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성도들의 기증물품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성도 가정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한 점당 1,000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선한 사업에 쓰인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단학선원 관련 긴급 주의 요청

지난 7월3일 전국 공원에서 건강을 전하는 무료 국학기공 강사 5천여명이 국학원에 모였다. 이는 단학선원(단월드 대선사 이승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들은 매일 새벽 전국의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학기공'이라는 체조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학기공 강사를 양성하고 뇌교육을 알리기 위하여 여름방학에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 직원 및 교사 직무연수 교육계획이 전국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사들은 이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고베 성서공회 우리교회 방문

지난 7월 23일(금) 일본 고베 성서공회 회원 55명이 우리교회를 방문하였다.



8월 한 달간 다락방 방학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계속되는 무더위로 가정 개방과 심방이 어려운 8월 한 달간 우리 교회는 다락방 모임을 잠시 쉰다. 성도들은 이 한 달 동안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가족과 함께 말씀 읽기와 기도예에 힘쓰는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이 기간 동안 다락방장들은 성도들의 성수주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전화심방을 통해 다락방 가족들을 돌보며 교회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은 모이기에 힘쓰도록 한다.

미리암 중창단 피아니스트 임명

교회는 미리암 중창단 피아니스트로 윤은숙 선생을 임명하였다. 윤은숙 선생은 성결신학대학에서 교회음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하고, 세종대학원 교회음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하였다.

되돌아보는 이종운 목사의 일생 1

목사 이종운, 박사 이종운

이종운은 1940년 8월23일 경주 李氏 이규남(李圭南)씨와 박귀순(朴貴順)씨의 10남매 중 여섯 번째로 충남 천안군 성환면 성환리 449번지에서 태어났다. 조부 이래영(李來榮)씨는 한학자로 서당 훈장을 지내신 유학자였다.

1945년 광복의 기쁨과 함께 주변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 입학할 하자 초등학교 입학 적령기에 미달한 이종운은 학교 보내달라고 3개월을 매일 울면서 부모님께 졸라서 가입학생으로 교장선생님의 허락만 받고 한 자리를 마련하여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무성영화시대인지라 동리에 영화가 상영될 때 들은 번사의 구성진 목소리 흥내를 잘 내었고, 부친이 행사장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따라서 집에서 멋진 목소리로 연설을 하면 아버지는 제사식이기 때문이었겠지만 항상 만족스런 표정으로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워주시고 상도 주셨다. 이종운은 고등학교시절 웅변반에 들어가 당시 산림녹화운동장려 웅변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전국학생신앙운동(SFC)동계수련회에서도 우승컵을 받았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25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종운의 부친은 삼성상회(三成商會), 삼성정미소, 직산에서 금광사업도 하시는 기업인이었다. 집 앞마당에 쳐 놓은 라디오 앞에 동리사람들이 모여와 삼팔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으며 갖가지 소문들을 얘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던 이종운은 나도 피난 좀 가보았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가족들을 조부가 사시는 아산군 음봉면 쌍룡리로 보내고 동리 유지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다.

9·28수복 시 그의 부친은 국군의 뒤를 쫓아 고향으로 왔으나 인민군 패잔병들이 숨어 있던 집을 미군 공군기가 폭격할 때 옆집에 피신하던 아버지는 심한 충격을 받아 결국 그해 세상을 떠나셨다. 이종운은 어려서 일찍 부친의 죽음을 보면서 풀잎의 이슬같은 인생을 생각한다.

초등학교 4학년때 반장으로 선임됐으나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반장의 자리를 내주면서 심한 질투심과 모욕감을 견딜 수 없어 당시 자기 집에 설치해 놓은 탁구대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모아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를 하자고 피어 그 친구의 머리통을 기름길레를 불태워 넣은 강동으로 내리치는 악을 행한 적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순례자는 매주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회가 취재한 목사 이종운, 박사 이종운의 일대기를 연재한다. 성도님들의 많은 애독 바란다.

편집부

English Ministry Retreat

Enjoying God

Rev. Joshua Cho

Our English Ministry is having its annual summer retreat on July 30-31 at Agapetown. The theme of this year's retreat is "Enjoying God." This theme is based upon our ministry's vision, which is to be a community of humility,



Theologian and pastor, John Piper, has highlighted the second part of this answer, "enjoy Him forever," and suggested that one of the ways we can understand it properly is by rephrasing the catechism's answer this way: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peace, and joy. Becoming this kind of community does not happen automatically, like flipping a light switch. Rather, as we focus on the consistent plant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faithful preaching and teaching, we can expect to see these particular fruits grow out naturally in our community. In our previous two years, we have focused on what the fruits of humility and peace should look like, so now we are focusing on joy.

In addition to our ministry's vision, the theme of the retreat has been informed by a meditation on the first question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What is the chief end (i.e. main purpose) of man?" The answer: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forever." In other words, we can emphasize God's glory most when we show it to be worthy of our affections. God's glory is so glorious, that it is not only deserving of our physical and mental worship, but also our emotional worship of joy. If we do not enjoy God, we dishonor Him. When we enjoy other things of this world more than God, we diminish and degrade His glory.

So our retreat this year will meditate on how we can bring maximum glory to God by enjoying Him, and how seeing God's glory through all His attributes and His work of salvation should bring maximum enjoyment.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an exciting retreat. Please pray for us.

여름 수련회 초청의 글

수화로 하나님과 소통



최사순 집사
(에바다부 부장)

인생은 빵과 우유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때로는 감람산에서 기도의 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양식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일상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산과 들로 떠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호반과 숲이 어우러진 아가페 타운이 에바다부 모든 지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응답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수련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에바다부 모든 지체들을 아가페 타운으로 초대합니다.

에바다부 지체들은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해맑은 마음의 언어인 수화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바다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나눔A+ 운동

이번 여름방학, 나는 더워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

허유정 (중등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 개의 기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실천방법의 하나로 매년 9월 열린 바자를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사랑나눔A+' 운동을 실시하여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을 돕는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나눔A+'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약할 것도 없다고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소식지의 '10% 절제운동'란을 읽어 보았는데 핸드폰 통화료, 각종 게임방 출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거나, 사소한 것에 많지는 않지만 돈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요금은 부모님이 내주시니까 얼마가 나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간혹 너무 많이 나오면 엄마께 혼이 나곤 했지만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사먹는 떡볶이나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로 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학기 중에는 하기 어려운

'10% 절제 운동'을 실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친구들과의 목적 없는 연락을 줄여 핸드폰 요금을 줄여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껌, 아이스크림, 과자 등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참고 그 돈을 절약하겠습니다.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이나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때 조금 더 일찍 출발하여 걸어 다니면서 교통비를 절약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조금만 걸어도 덥긴 해도 참고 노력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시원해 하시겠죠?

이렇게 결심한 나의 마음을 '10% 절제 약정서'에 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8월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하여 잘 지키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잠깐의 기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참고 나중에 보람 있는 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 금번 실천 운동에 기쁜 맘으로 참여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름보다 크고 새하얀 얼음과자를 드려서 빈약한 자를 구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새가족부

늘 깨어 기도하며

백승갑 집사(새가족부 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가족이 서울교회의 한 가족이 된 지도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출석하였을 때에는 10년이 넘는 오랜 해외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모든 것이 새롭게 낯설기만 할 때였습니다. 과연 서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근심할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은 이종운 위임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족처럼 반겨주셨던 새가족부 교사님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담당하신 교사들께서는 매주 안부 전화와 교회에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당시 수천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챙기시는 새가족부 교사들의 모습에 무척이나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새가족부 8주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봉사부서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던 중 새가족부 지도교역자이신 지혜영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토록 제가 존경하던 새가족부 교사로서의 봉

사권유를 받고 교사양성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년째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며 처음에는 새가족을 교회에 잘 정착시켜야 하는 다리역 할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제 자신이 처음 서울교회에 정착하면서 경험한 새가족부 교사님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며 서툴지만 하나씩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새가족들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 섬기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오히려 제 자신이 더 변화 받고 도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뇌리에 생생히 기억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분은 올 초 8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13교구에 사셨던 고 최광필 집사님이십니다. 본 교회 등록하시기전 몇 년 동안을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에 매료되어 교회출석하시다가 2008년 6월초 등록하여 저희 반에서 8주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개근으로 수료하신 후 소요리문답부에서 성경공부에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젊어서는 공직으로 후에는 대학교수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국립안동대학교 음악학과장으로 있는 테너 이광순 교수의 찬양으로 드린다.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베르디국립음대에서 공부하였으며 베르디국제콩쿨 등 국제콩쿨에 수차례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의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니(나운영)' 외 두곡을 양경실 성도(임피누엘찬양대)의 반주로 드린다.

로 1남 1녀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노년에 찾아든 암과 투병을 하시며 많은 고통속에서도 하나님말씀을 늘 사모하며 성수주일할 수 있기를 고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분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서울교회에서 훌륭하신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의 꿀을 먹고 마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쪼록 제게 맡겨주신 귀한 새가족들이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여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9일(목) 북한구원운동 공동 회장단을 소집한다. 30일(금) 한국기독교 학술원 임원회에 참가한다.

■ 정정합니다 ■

이종운 목사의 시택주소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131-1 현대 리버빌 B-302

- 연주회: 박광서 집사(4교구) 제1회 서울국제타악기축제 감독, 7월26일(월)~30일(금)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홀
- 주간식당봉사: 뽕뽕전도회(7.25) 마리아전도회(8.1)
- 금주의 식사: 이영기 장로 이영숙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육 1국 여름성경학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위하여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